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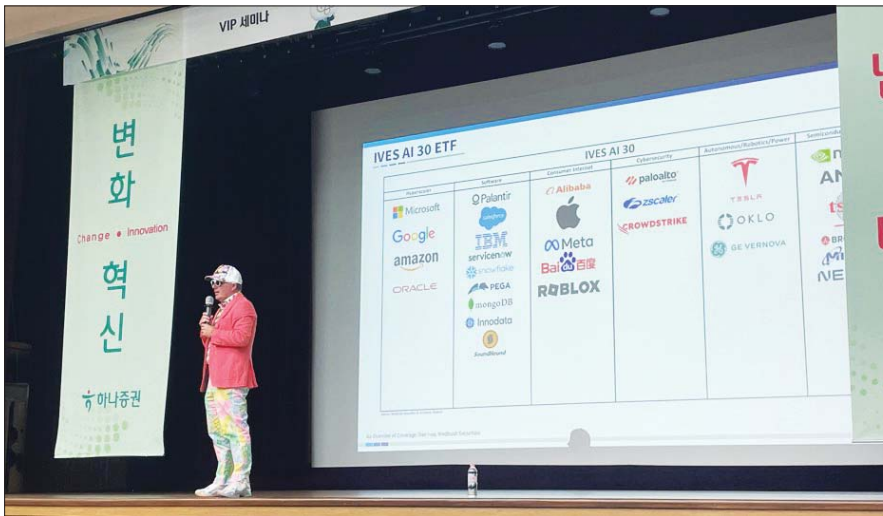
# “AI 슈퍼사이클 한창… 한국엔 스토리·인재·도전 필요”

‘하나x웨드부시 글로벌 인사이트’  
월가애널리스트댄 아이브스강연  
“AI 랠리 초입… 최소 2~3년 더 간다”  
데이터센터·전력산업 새 기회 전망  
하이닉스 두 배 성장 잠재력 언급  
한국 기업, 여전히 조용하단 지적

코스피 4000 돌파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27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열린 ‘하나x웨드부시 글로벌 인사이트: 넥스트 웨이브’ 세미나에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기술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는 “AI 랠리는 아직 한밤중 전, 밤 10시30분쯤에 불과하다”며 “새벽 4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 열기는 10점 만점에 10인데, 주가는 7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AI 슈퍼사이클은 최소 2~3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데이터센터 “모델은 싸지지만 데이터는 비싸진다”

이날 세미나는 웨드부시리서치센터의 세스 바삼 수석전략가가 ‘미국 주식시장



댄 아이브스(Daniel Ives) 미국 웨드부시 증권 기술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가 27일 하나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하나 x 웨드부시 글로벌 인사이트: 넥스트 웨이브’ 세미나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과 AI 확장’을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아이브스가 ‘기술 및 AI 전망’으로 무대를 이어받았다. 테슬라 강세론자이자 ‘AI 30’ 리포트와 전용 ETF를 이끄는 그는, 글로벌 AI 생태계와 한국 기술주의 미래를 함께 조망하며 “AI 혁명 속 한국이 재발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브스는 “AI의 본계임은 이제 시작이고, 진짜 가치는 데이터에 있

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라,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테슬라, 엔비디아를 ‘데이터를 쥔 기업’으로 꼽으며 “이들이 다음 세대의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인프라 확장은 데이터센터·전력·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력공급이 병목이 되겠지만, SMR(소형모듈원전)과 전력 인프라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닌 경제 구조의 변화”라며 “나스닥 3만포인트 달성은 과장이 아니다. 이 흐름은 최소 2~3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AI 혁명 초입…하이닉스 두 배 성장 잠재력”

그는 한국 기술주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도 낙관과 숙제를 함께 제시했다. 아이브스는 “AI 혁명 속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을 ‘AI 혁명의 초입에 있는 나라’로 정의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이 이미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뒤따르는 만큼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두 배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기업은 여전히 너무 조용하다”며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마케팅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기업들은 투자자에게 비전을 설득

력 있게 전달하고, 시장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만 한국 기업은 실적 수치만으로 자신을 설명한다”며 “이야기가 없는 숫자는 주가에 독이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이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얻는 반면,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구조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브스는 “좋은 기술 위에 좋은 이야기를 쌓고, 그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있어야 자본이 머문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과 인재가 있다. 다만 이 인재가 국내에 머물 유인 구조와, 기술이 다시 창업과 혁신으로 순환되는 생태계가 아직 약하다”고 짚었다. 특히 “뛰어난 한국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단기 인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부·기업·대학이 연결된 혁신 생태계가 마련돼야 하고, 이어 그는 “한국에서 성장한 기술과 인재를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 정신을 적극적으로 배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국내외 증시 훈풍에 ELS 발행 ‘굉충’

3분기 발행액 12.7조 규모  
전년 대비 35.9% 증가 기록

국내외 증시가 이례적 호황을 누리면서 인기 파생금융 상품인 추가연계증권(ELS)의 올해 3분기 발행액이 전년 대비해 크게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 ELS 발행액이 12조77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발행종목 수도 3752개로 전년 동기보다 20.4%가 늘었다.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와 연계해 투자수익을 주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만기까지 지수나 주가가 정해진 수준 아래로 안 떨어지면 원금과 최대 10%대의 이자를 주지만, 반대로 기준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ELS는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가 높으면 이에 비례해 수요와 발행액이 늘어난다.

예탁원의 ELS 집계는 추가연계사채(ELB)를 포함한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2분기)에도 ELS 발행액은 21조731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18.6%가 증가했다.

ELS에 묶인 국내 자금을 뜻하는 발행잔액은 올해 3분기 54조276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12.6%가 늘어났다.

올해 3분기 발행액에서 지수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고 종목형은 44.4%였다.

지수형 ELS 중에서는 국내 코스피 200지수를 자산으로 삼는 ELS가 크게

늘었다. 코스피가 최근 사상 최초로 ‘사천피’(지수 4000)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한 여파로 풀이된다.

예탁원은 올해 3분기 코스피 기반 ELS가 5조5684억원이 발행돼 직전 분기(올해 2분기)보다 15.4%가 늘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과 유럽 EURO STOXX 50을 포함하는 ELS는 각각 직전 분기 대비 발행액이 6.0%와 4.6%가 감소했다.

증시 호황 덕에 조기상환 실적도 크게 늘었다.

3분기의 조기상환액은 6조8448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33.5%가 늘었다. 만기상환은 4조4087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19.4%가 줄었다.

/허정윤 기자

## 미래에셋증권, 미국주식 데이마켓 재개

내달 4일부터 거래시간 대폭 확대  
스마트 주문시스템 도입해 효율 강화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1월 4일부터 미국주식 데이마켓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존 심야 거래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미국 주식을 추가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래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24시간 중 약 23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셈이다.

회사는 이번 재개를 계기로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뉴욕 현지법인과 협업해 네트워크를 개선했으며, 기존 블루오션 대체거래소 외에도 OTC마켓그룹의 ‘문(Moon)’과 나스닥의 ‘브루스(Bruce)’를 추가로 연결했다. 또한 세 곳의 거래소 시세를 실시간 분석해 가장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자

동 발주하는 ‘스마트 주문시스템(SOR·Smart Order System)’도 새롭게 도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데이마켓 서비스 재개는 단순한 복원이나 아니라 내년 예정된 미국 주식 24시간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AI투자정보’(리스크 알림), ‘해외AI공시’(공시 원문 요약), ‘웹스테크’(AI 포트폴리오 관리) 등 서비스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투자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의 해외주식 잔고는 지난 10월 10일 기준 5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평가차익만 약 15조원(세전)에 달했다.

/허정윤 기자

## 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IB 고위 임원 등 4명 혐의자로 특정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담당 고위 임원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임원 A씨는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고객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A씨를 포함해 그의 가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NH투자증권

족 및 가족의 지인, 영업본부 직원 등 총 4명을 혐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종목에 투자해 왔으며, 부당이익은

총 2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을 관리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해야 할 금융회사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최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가족 등의 주식 거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삼성증권, 퇴직연금 2위 우뚝… 증가율 1위

적립금 1년 새 22.6% 증가

삼성증권이 3분기 퇴직연금 증권 사업자 적립금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15조4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8조9000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적립금 1조 이상 전체 사업자 중 증가율 1위다.

개인형 퇴직연금(DC·IRP)은 지난해 말 11조3000억에서 올해 9월 기준 14조8000억원으로 31% 증가했고, 그중 상장지수펀드(ETF)는 3조4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71% 큰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의 ETF 잔고는 72%,

50대의 ETF 잔고는 78%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삼성증권의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도 사업자 중 선두권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업권 적립금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삼성증권의 DB형, DC형, IRP도 수익률 모두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퇴직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